



## 2016년 4월호 봄의 길목 산정마을

봄은 농부의 발걸음을 빨라지게 합니다. 산과 들에 꽃망울이 터지면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느라 하루해가 어찌 가는 지도 모릅니다. 저 멀리 슬치고개가 내려다보이는 고갯길 산정마을에도 봄이 왔습니다. 농사준비로 바쁜 산정마을 사람들의 봄 마중을 엿보았습니다. **관련기사 2~7면**

사진설명 : 산정마을 노인회장 이용옥, 구정자 부부가 고추밭에 퇴비를 내던 중 잠시 짬을 내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짐승도 구름도 쉬어가는 얇으막한 깔막 마을

완주 상관 면소재지에서 임실 관촌으로 향하는 슬치고개 아래, 전주남원국도를 벗어나면 꽤 넓은 터와 가파른 경사를 가진 마을이 나타난다. 임실로 넘어가기 전에 만나는 완주군의 마지막 마을 산정마을이다. 이곳에는 65세 이상의 할머니·할아버지 30여 가구가 산다. 주로 고추 농사나 콩, 팥을 심는 이곳은 전주 이씨 집성촌이기도 하다.

### 깔막(언덕)에 있는 마을

마을은 지대가 높다. 전주보다 목련이 7~10일 가량 늦게 핀다. 마을 초입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경사가 꽤 높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엔 벅찰 정도다. 그래서인지 마을 어르신들은 노인 보행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만나는 모든 어르신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

“겨울에 눈 오면 그날그날 바로 쓸어야해. 얼어버리면 노인들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거든. 근데 마을이 언덕에 있지만 옹골하고 동네 자체가 정남향이라 따뜻해. 눈도 오면 바로 녹고.”(이덕구·68)

언덕을 오르는 경운기가 뒷걸음질 치다 다시 천천히 오르기 시작한다. 이평구(76) 할아버지는 그렇게 마을 뒤에 있는 밭으로 향했다.

“누가 우리 마을에 오면 ‘여긴 대체 뭐 먹고 사냐’고 물어봐. 앞에서 볼 땐 밭이 없거든. 근데 저 뒤로 가면 밭이 겁나(많아).”(이인구·72)

집들을 지나 마을 꼭대기에 다다른다. 그리고 뒷길 임도로 향한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숨어 있던 밭들이 나타났다. 밭 위에 놓인 비료 포대가 봄벌 아래 나른하게 누워있다.

“옛날에 논 200마지기가 우리 마을에 있었어. 논농사도 많이 지었지. 전부 광양선이 나면서 다 사라졌어.”(이용옥·81)

마을 뒤 밭으로 향하는 길, 그 아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훤히 보인다. 반대편에서는 구불거리는 산길을 따라 경운기가 힘을 쓰고 있다. 밭으로 후진하는 경운기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덜컥거리는 소리를 낸다. “농사가 깔막 밭이라 평지보다는

힘들어도 그래도 괜찮어. 다른 밭은 여기보다 더 비탈도 하는데 뭘.”(송준순)

### 봄나물 올라오는 밥상

4월이 되기 전, 마을 경로회관은 2명씩 짝을 지어 점심 당번을 한다. 이날 점심 당번인 박영자 할머니는 집 앞 마당에서 돌나물을 캐고 계셨다.

“여긴 마당에 있는 게 다 반찬이야. 요새 같으면 돈(돌)나물을 캐기도 하고 상추 뜯어다 먹기도 하고, 봄이 오니 먹을 게 지천에 있어. 여긴 자급자족이 돼.”(박영자·72)

오늘 점심 식단은 돌나물과 고등어조림, 갓 담은 깍두기, 밭에서 가져온 상추와 집된장. 그리고 누군가의 생일이라며 사온 튀긴 굴비도 있다. 입안에 들어온 나물향에 문득 봄을 느낀다.

“매일 쌀 3kg씩은 밥 하나며, 우리는 11시 반이나 되면 여기 다 모여서 밥 먹거든. 같이 먹으면 좋지.”(이예분·73)

### 어미를 재촉하는 봄

마을 초입의 경사진 밭, 김영권(80) 할머니는 마른 땅에 앉아 호미질을 하신다. 다 구겨지고 뒤축이 무너진 운동화를 신고 할머니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신다.

“풀떼기 씨가 떨어지면 이렇게 땅에 퍼져. 그럼 밭에 나와 호맹이(호미)질 해야해. 농사 조금이라도 해야 우리 애들들 주지.”

아직은 차가운 아침 공기, 할머니는 봄을 맞이하는 땅을 일군다. 끝이 버린 바람, 두터운 덧신은 그가 마지막 추위를 내치는 유일한 무기다. 19세 이 낮선 동네로 이사와, 82세가 될 때까지 그는 수십 번의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올해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6남매를 ‘제대로 갈치지(가르치지) 못한’ 못난 어미라, 그래도 ‘훌륭하게 키운 자식들이’ 용돈이라도 준다 하면 ‘너무 미안스러워(미안해서)’ 콩이라도 심고 팥이라도 심어 팔아야 한다. 어미에게 봄이란, 무릇 그런 것이다.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부지런해지는 계절이다.☺





산정마을 전경\_드론 촬영\_제공 곽풍영 작가



### 80호 넘게 살던 큰 마을 큰길 나면서 대부분 이주

산정마을은 큰 도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가구 수가 80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소치고개 아래 만마관(호남제일관(湖南第一關)이라는 별명이 붙은 관, 전주를 방어하는 역할)이 있어 전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통금 시간이 있다 보니 남원에서 넘어오다 제 시간에 만마관을 지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 소치마을에서 하루 묵으며 쉬어가야만 했기에 주막이며 유곽이 많았다고 한다. 예전엔 하루에 소를 세 마리나 잡을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고 하니 마을이 얼마나 번창했었는지 짐작이 되기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큰 마을이 큰길 나면서 길 옆에 있던 집들이 보상을 받아 이주를 하고, 또 화전정리라고 하여 마을에서 외떨어진 가구는 이주비를 주어 내보내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가 또 줄어 지금은 30여호 밖에 남지 않았다. 그중 전주이씨 자손이 7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주이씨와 연결된 친척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 춘향전에도 나오는 마을이라니께!

산정마을은 춘향전에서도 언급되었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좁은 뜰으로 달아나와 만마관 고개를 넘고, 노구바위를 넘고, 임실을 얼핏 지나 남원부를 사십리 앞둔 오수역에서 점심을 먹고... (춘향전 중)

춘향전에 나오는 노구바위라는 지명이 지금의 산정마을을 일컫는다. 노구바위는 늙은 개가 달을 보며 짖는(老狗吠月)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또 늙은 할머니가 고사리를 꺾는 노구채미의 형상이라 하여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만마관을 통해 전주로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늦어 성문이 닫히게 되면 전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 소치에서 하루 묵어야 했다고 한다. 이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등짐에 노구

(구리나 낫쇠로 만든 작은 솥)를 지니고 다니다 적당한 곳에서 밥을 지어 먹었는데, 지금의 슬치고개 바로 아래 개울가가 노구바위 자리였으며, 소치라는 지명 또한 솥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슬치라는 지명은 지형이 비파의 안족(雁足:기러기 발 같이 생긴 비파 줄 받침대)을 낀 비파줄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졌다. 즉 비파의 줄처럼 산정마을은 급하게 올라가지만 슬치 정상에서 관촌으로 내려갈 때는 완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또한 전주천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이곳 산정마을에서 시작될 뿐 아니라 나주·남원 등 남쪽에서 전주로 들어서는 교통로의 길목으로서 군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산정이란 이름의 유래는 산 위에 있는 마을로 전에 정자나무가 있어 생긴 이름이거나 산마루가 산정(山亭)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김한해(산정마을 주민, 귀촌인)



# 아직도 5000평 농사 ... “그래도 몸 성하니 이리하지”

땅 아래 봄의 태동이 시작되면, 마을의 농부들은 바빠진다. 풀을 메고, 퇴비를 내며, 한해 농사지을 준비를 한다. 이용옥(81·노인회장), 구정자(75) 부부도 서서히 나이든 몸에 힘찬 시동을 건다.



## 뿌리고 거두길 수십 년, 노부부의 봄은 해마다 단단해져

“우리는 마을 전체 5,000평 정도 농사를 지어, 고추도 심고, 콩이나 팥도 좀 심고, 이제는 힘없어서 특수작물 같은 건 못혀.”

그토록 넓은 땅에, 노부부는 수십 년간 씨를 뿌리고 거뒀다. 부부가 맞이하는 봄은 매해 새롭고, 단단했다. 4남매를 둔 부모였기에 가능했다.

“옛날 생각하면 참 곤란했어. 나는 시집오던 날 시내버스 타고 저 밑에서 내렸어. 한복 들쳐 메고 집까지 올라왔지. 그땐 우리도 젊었는데 이제 이런 늙은이가 됐네.”

스무 살이었던 정자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고향 장수군 산서면을 떠나 낯선 마을로 시집왔다. 할머니는 10월의 찬바람을 가르고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당시 용옥 할아버지는 막 군대를 마친 까까머리 총각이었다. 결혼 후 부부는 시부모님께 본격적으로 농사를 배워나갔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어깨 너머로 농사를 배웠어. 이 고추해서 자식들 다 키웠지. 나

는 평생 농사를 지었어도 제일 어려운 게 농사야. 땅에다 심으면 저절로 커지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여.”

노부부 둘이 짓기에는 벅찬 양의 농사. ‘힘드시겠다’는 낯선 객의 걱정엔 한참 구부리고 있던 허리를 그제야 펴신다.

“농사 쪼끔(조금) 지으면 그게 더 복잡혀. 우리 늙은이 용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농사라도 지어야 손주들 크는데 보탬도 되지.”

뜨거운 봄볕 아래, 정자 할머니는 팔을 건어 부치신다. 붉어진 팔을 바라보며 말을 내뱉으신다.

“오늘은 햇볕이 겁나게(많이) 뜨겁네. 일하느라 몸이 다 붙어졌어.”

11월 눈이 올 때까지 부부는 쉬지 않는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품앗이를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부 나이가 들어서 그것도 못혀. 시골은 원래 이려. 그래도 몸이나 성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딸내미, 댕겨가요.”

뒤돌아서는 낯선 객에게 스스로없이 ‘딸내미’라 불러주는 노부부의 봄도 시작됐다. 바지런한 부부를 굽어보는 태양 아래, 그들의 삶은 오늘도 땅 위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봄의 길목 산정마을 최고령 유말레 할머니

## 백발에 허리 굽은 할머니는 아직도 열여덟 소녀

유말레(94) 할머니는 산정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시다. 자신을 닮은 오래된 호미를 들고 집 뒤 작은 텃밭에서 풀을 매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다. 짧은 백발에 기억(기)자로 굽은 허리. 할머니는 올해로 아흔넷이다.

“나 허리가 완전 구부러졌어.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풀이라도 안 매면 앓은뱅이 돼버리니까 이거라도 해야 해.”

전주 초포가 고향인 할머니는 열여덟에 산정마을로 시집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8남매를 낳았다.

“시집오니 이집에 8남매가 있더라고. 나도 8남매를 낳았어. 시집오고 시아재(시아주버니)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 하고 그랬지. 그땐 나 2시간도 못 잤어. 우리 시엄니도 일만 많이 하셔서 지고 허리가 지금 나처럼 구부러졌어.”

시집온 어린 새댁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를 했다. 쉴 틈 없는 집안일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어린 할머니는 집이 아닌 밭에 나가고 싶었다.

“호미(호미) 들고 밭 매는 게 그땐 제일 좋았어. 식구들 먹을 밥하고, 밭일 할 때 먹일 새끼리(새참)해서 들고 가고. 잠잘 시간도 없었어.”

마을의 초입, 언덕 경사가 가파르기 전 평평한 땅에 할머니의 집이 있다.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는 기울어진 오래된 방. 예전에는 아들이 쓰던 방이었고, 딸들이 쓰던 방이었다. 지금은 이 집에 할머니 혼자 산다. “이 집(에서)이젠 나 혼자 살아. 예전엔 복잡거렸지.”

풀을 매다만 할머니는 면장갑을 벗으신다. 그 속에 구깃거리는 비닐장갑이 나온다. “풀이라도 매고 나면 손이 시켜매져. 그 손으로 교회 갈라치면 좀 그렇잖어. 그래서 이거 끼고 위에 장갑 끼는 거야.”

할머니의 나이를 여쭙는다.

“나 나이 많아. 부끄러워서 말 못혀.”

열여덟의 풋풋한 그녀는 어느새 아흔넷이 됐다. 자신도 모르게 들어버린 나이가 부끄럽다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소녀가 보인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허리를 숙이신다. ‘날이 따술(따뜻할) 때’ 풀도 매야 한다며, 손에 든 호미처럼 할머니의 허리가 다시 굽는다. 



“풀이라도 매야  
앓은뱅이 안 되지”

오래된 호미 들고  
텃밭으로 나가



봄볕 아래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던 중 만난 유말레 할머니.

#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예뿐이' 라 부르네



딸만 셋 있던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다. 그것도 내리 네 명이나. 부모는 아들 부자가 된 것이 마치 꼭, 셋째 딸 덕분 같았다. 고맙고 예쁜 내 딸. '예뿐이' 라고 불리던 그 딸의 이름은 김예분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예분(73) 할머니를, 옛날 그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뿐이' 라고 부른다.

## 같은 동네 총각 만나 결혼 "이 마을을 떠나본 적 없어"

예분 할머니는 산정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동네에서 결혼한 '제자리 색시' 다.

"옛날엔 내 마음대로 시집도 못 갔어. 올 아버지가 나를 동네에 여의려고 하길래 안 갈라고 일년을 빼냈거든. 근디 결국 이 동네로 시집왔네."

남편이 될 동네 남자는 얼굴은 알았지만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던 사이였다.

"시방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할거라고 생각이나 했었간. 친정아버지가 원채(위낙에) 무서웠어. 호랑이 같았지. 그래서 나는 한 동네로 시집 안 가고 싶었어."

어린 소녀는 다른 마을로 시집간 또래 친구들을 보고파할 겨를이 없었다. 친정이 가까이 있었지만 좋은지도 몰랐다. 그만큼 젊었던 할머니의 삶은 바빴다. 담배 농사를 했고, 뽕나무도 키웠고, 복식(복숭아)나무도 심었다.

"농사에 파묻혀서 심심한지도 모르고 컸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를 이뻐해서 그랬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여기로 시집을 보냈나, 아무튼 난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어."

농사일로 4남매를 키워낸 예분 할머니. 엄마가 됐던 소녀는, 이제는 할머니가 됐다. 평생 논과 밭에서 그를 지탱해왔던 허리와 다리도 이제는 나이를 먹었다.

"올해도 농사지어야 되는데 아파서 큰일 났어. 나 먹을 놈은 농사지어야지. 수술해야 되는데 하

고나면 병신 될까 무서워서 못하겠네.(웃음) 나는 이 마을서 일만 하다 죽겠어. 봄 일철이 돌아오면 심란스럽고 싫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찌."

꽃을 좋아하는 예분 할머니의 집과 마당에는 꽃나무가 많다. 할머니에게 봄이란, 심란스러운 일철이지만, 동시에 보고 싶은 꽃들이 망울을 터트리는 환한 계절이다.

"아무리 바빠도 꽃나무에 물은 꼭 줘. 봄 오면 내가 그래서 더 바빠. 밭도 나가고 꽃나무도 봐야 하고. 저기 마당에 싸리하고 철쭉이 있는데 저것들도 피면 얼마나 이쁘네."

집을 나와 마을로 향하는 길가. 예분 할머니가 지난날 심어놓은 수선화가 봄별 아래 할머니를 반긴다. '나에게 봄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봄의 길목 산정마을 5년 전 귀촌 상관면 기록하는 김한하 씨

## “마을과 어르신들 삶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2012년 전주에서 상관면 산정마을로 귀촌한 김한하(49)씨는 지난해부터 ‘상관면 마을이야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상관면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방 이후 각 마을과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 작업을 하고 있다.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 자기소개를 해달라

사진을 찍는 시인이자, 상관면 자원연대 총무를 맡고 있다. 전주 둘레산 둘레강 만들기 사업 안내서, 전주시 보호수 스토리텔링 ‘나무 할머니의 옛날이야기’ 책 작업, 개인 시화집 ‘우렁각시의 꿈’ 등을 발간했다. 산정마을로 귀촌 후에는 장아찌나 효소, 차를 만들고 있다.

### ‘상관면 마을이야기’는 어떤 프로젝트인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들의 삶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해방 이후 이 마을이 어떻게 유지가 되었으며 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마침 상관면 민장님의 작업 권유가 있었고, 지난해부터 상관면 마을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또한 사진작가 곽풍영 씨의 도움을 받아 마을 정경 작업과 어르신들께서 보관하고 계신 오래된 사진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안에 책을 발행할 계획이다.

### 작업을 하면서 힘든 일은 없나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어르신들의 기억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빈부의 격차 때문에 쌓였던 감정이 인터뷰 도중 갑자기 튀어 나와 말다툼을 번질일도 있고 이런 작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또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분들께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된다.

### 앞으로의 계획은

각 마을을 다니다 보면 오래된 정자나무나 우물, 바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책으로 엮는 작업을 생각하고 있다.



### 김한하씨네 큰언니도 귀촌

산정마을에 반가운 새 가족이 생긴다. 지난해 착공해서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두 채의 집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2012년 산정마을로 귀촌한 김한하(49)씨의 큰언니 귀자(67)씨와 오빠 재원(58)씨 가족이다. 이들의

귀촌은 지난해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큰언니 귀자씨가 수술 후 요양차 동생 집에서 머물렀던 것이 계기였다.

한하씨는 “형제들간에 나이가 들면 우리끼리 오순도순 모여 살자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3년 후에는 미국에 있는 작은 언니 내외도 들어 올 예정”이라고 웃었다.

귀자씨와 재원씨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로 이사와 형제들과 오순도순 살 생각에 마냥 가슴이 부풀어 있다. 봄이면 진달래 따라 화전에 막걸리 한잔, 여름이면 산에 가서 오디도 따먹고 가을이면 도토리, 밤을 주워 묵이랑 떡을 해 먹을 생각에 이미 마음은 부자가 되어있다”고 웃었다.



공유부엌 '모여라 땡땡땡'

# '집밥' 으로 차린 식탁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마을회관 뒤에 논이 있는데 땅이 좋던데요?"  
"요새는 얼마 정도 해요? 닭도 키울 수 있어요?"  
3월23일 낮 12시께 삼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모여라 땡땡땡' 공간으로 하나둘 사람이 모인다. 식탁에 앉은 이들은 '집밥' 으로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곳은 식당이나 카페 또는 사랑방, 문화공간으로 사용된다. 일주일에 네 차례(월·수·금·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공유부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식탁은 오늘의 셰프 최수원(54·고산면)씨가 솜씨를 부렸다. 직접 농사 지은 쌀로 지은 밥, 농사지은 무, 고추 등으로 만든 도시락이다.

수원씨는 "오늘 식탁의 콘셉트는 옛날 도시락이다. 밥이 부족하지 않게 늘 넉넉하게 조리해야한다. 예전에는 남편과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곤 했지만 이곳에 나와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즐기니 또 다른 먹는 재미가 있다"고 웃었다.

한 끼 식사 가격은 식후에 즐길 수 있는 원두커피를 포함해 5,000~6,000원 선. 이곳을 찾는 점심 고객들은 혼자 먹지 않아도 되고 건강하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다. 직접 농사를 지은 농부가 조리까지 하는 믿을 수 있는 식탁인 것이다.

박영실(42·삼례읍)씨는 "평일 낮 시간에는 거의 나가서 점심을 해결했었는데 이제 웬만한 점심은 이곳에서 해결한다. 요리를 잘 못해 나물 반찬을 많이 못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 오니 자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요리를 잘 하지 못하거나 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자취생들에게 추천한다.

삼례에서 자취를 하는 진남현(28)씨도 "혼자 생활하다 보면 굶거나 편의점에서 주로 끼니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곳이 생기고 나서는 편의점에 잘 안 가게 된다"며 "함께 밥을 먹으며 지역 사람도 점점

알아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영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매개로 사람이 모여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한 달에 한번 요리 강좌를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교류하는 모임도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여라 땡땡땡' 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회원 및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거쳐 3월28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갔다. ☎



최수원씨가 차린 밥상, 삼례 씨앗문화예술조합의 '모여라 땡땡땡' 공간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들, 최수원씨가 옛날 도시락을 차리고 있다.(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일주일 네차례 함께 점심 식사  
직접 농사 지은 농부가 조리까지  
요리 강좌-교류 모임 계획도



모여라 땡땡땡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식당이나 카페 또는 사랑방, 문화공간으로 사용된다. 일주일에 네 차례(월·수·금·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공유부엌으로 운영되고 있다. 씨앗 회원, 동네 주민은 물론, 밥 먹을 사람이 없거나 메뉴 고민인 사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바느질 공방 손끝사랑 회원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다.(왼쪽) 손끝사랑 회원들은 서로 재봉기술을 공유한다.

## “취미로 시작해 비즈니스가 되었네요”

### 일곱 아줌마 바느질 공방 ‘손끝사랑’

홈패션 수업에서 만나 의기투합  
동아리로 활동하다가 공방으로 발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을 하니 매일이 즐거워요.”

봉동읍 어느 골목 안. 손끝사랑이라 적힌 아담한 공방이 있다. 완주에 사는 30~40대 주부 7명이 각자 물건 제작에 한창이다. 누군가는 가정용 실내화 도안 작업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재봉틀 앞에서 키홀더를 만들고 있다.

홍성심(42·봉동)씨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지난해 4월 봉동읍에 문을 연 손끝사랑은 홈패션을 다루는 작은 규모의 공방이다. 이곳의 시작은 20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산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삼삼오오 프로그램 홈패션 수업을 통해 만난 것이 시작이었다. 3개월간의 수업을 마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이후 삼례 문화기움터 공간을 대여해 동아리 형식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갔다.

이선진 대표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모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다. 특히 재봉틀이라는 것 손에서 놓으면 잊어버리기 마련이라 공간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런 바람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손끝사랑’이다. 홈패션 수업으로 만난 7명의 친구들은 이제는 하나의 공방



손끝사랑 회원들이 만든 작품들.

을 함께 운영하는 동료가 됐다.

최정은(44)씨는 “재봉틀을 처음 배우면서 어렵다는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만든 작품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를 배우면 여러 개를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웃었다.

이들은 주문 제작판매 및 홈패션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 판매되는 상품은 냉장도 커버, 키홀더, 커튼, 앞치마, 천가방, 쿠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현재 완주군의 희망아카데미 지원을 받아 공방 내에서 무료 홈패션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생은 재료비 5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명옥(41)씨는 “예전부터 공방을 차리고 싶었지만 혼자라 용기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 같다”고 웃었다. 



#### 손끝사랑은?

원단을 가지고 재봉틀로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홈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공방이다. 완주에 사는 30~40대 주부 7명이 모여 만들었다. 여성 파우치, 아이 신발주머니, 키홀더 등 작은 소품부터 이불, 커튼에 이르는 다양한 것을 만든다.



대둔산 케이블카 승무원들



멀미약 보약 영양

봄이 왔으니 산으로 향하는 이들이 많아 졌다. 마음속으로 지도를 펼치고 완주의 산들을 그려본다. 동쪽으로는 연석산, 남쪽으로는 만덕산, 서쪽으로는 모악산, 북쪽으로는 대둔산이 버티고 있다. 산마다 서로 견줄 수 없는 매력이 제각각이지만 대둔산은 1977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 되었다. 그리고 완주의 어느 식당에 들어가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분명 발견할 수 있다. 대둔산 중턱을 오르고 있는 케이블카 사진을.

1990년 11월 11일 운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고 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케이블카. 이곳은 대둔산 도립공원과는 별개로 '양지대둔산삭도'라는 개인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삭도'라는 생소한 말도 알게 됐다. 사람이 다니는 곳은 인도, 차가 다니는 곳은 차도. 공중에 연결된 줄로 다니는 길이니 동아줄 삭(索)을 써서 삭도라고 부른다. 이곳 회사는 영업운영팀, 기술점검팀, 사무지원팀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대표 포함하여 총 2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연중무휴 오르내리는 관광 케이블카지만 고객의 안전이 중요하기에 2~3년에 한번 꼴로 한 달 정도 휴업을 하고 집중적으로 기술점검을 한다. 게다가 올해는 10년 동안 운행한 케이블카를 새 케이블카로 교체하는 시기이다. 차도 10년 정도 타면 세 차로 바꾸듯이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다.

케이블카를 타고 중턱까지 오르는데 보통 5분 정도 소요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도 역시 줄에 의지해 공중부양하는 비행이다. 이 케이블카에 승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까. 대둔산 케이블카의 꽃, 영업운영팀 승무원들을 만나봤다.

멀미약 먹어가며 케이블카를 타다.

3월 10일부터 4월 7일 까지 설비교체작업과 기술점검으로 임시휴업을 한 상태라 한가하게 승무원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분들 역시 업무지원으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케이블카 역사 환경정리, 역사 내 카페 운영일 뿐 아니라 요즘은 본의 아니게 매일 등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입사 2년차 영업운영팀장 이은주씨로부터 요즘 진행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전화안내 063) 263-6621~3
- 홈페이지 양지대둔산삭도 [www.daedunsancablecar.com](http://www.daedunsancablecar.com)
- 운행시간 연중무휴 하절기 : 오전 9시 ~ 오후 18시 동절기 : 오전 9시 ~ 오후 17시
- 운영요금

구분	대인	대인단체	어린이	어린이단체	경로, 장애인, 가유공자, 완주군민
왕복	9,000	8000	6,000	5,500	8,000
편도	6,000	5,500	4,000	3,500	5,500

세 먹어가며

# 5분거리 케이블카에 오른다구요!

“지금은 공사기간이어서 케이블카가 움직이지 않아요. 상부 역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영업팀에서 지원을 나가는 거죠. 3인 일조로 중턱 상부 역사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밥해먹고 오는 거죠.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어떻게 매일 거길 오르내리나, 근데 매일 가니까 좋더라고요. 살도 좀 빠질까 기대를 했는데 산을 오르내리니까 밥맛이 좋아져서 평소보다 더 먹는 것 같아요.”

경치 좋은 곳에서 매일 케이블카를 타는 일을 하니 좋지 않냐고 관광객들이 묻곤 한다. 입사 2년차 김명순씨는 케이블카 승무원일 하며 1년 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해줬다.

“멀미와 고소공포증으로 고생 좀 했죠. 적응하는데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케이블카 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했죠. 화장실가서 오바이트도 하고, 그런데 고객들 앞에서 아픈 기색을 낼 수 없으니까 몰래 멀미약도 먹기도 했죠.”

올라가는 데 5분인데 무슨 멀미나 하겠지만 성수기 때는 2시간동안 흔들리는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계속 오르내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약도 소용없다. 그럴 땐 그저 시선을 멀리 두고 탁트인 대둔산을 바라보는 수밖에. 승무원 포함해서 51명이 케이블카에 탈 수 있는 최대정원이다. 성수기 때는 발 딛을 틈 없이 케이블카가 사람으로 가득 찬다.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오롯이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도 역시 승무원들이다.

## 대둔산의 넉넉한 품이 있어

입사 14년차 영업운영팀 최고참 김근하씨는 대표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한 사람 들어가면 딱 차는 작은 매표소에서부터 시작했다.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던 시절이라 성수기 때는 쌓인 지폐를 세느라 엄지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교대 근무자도 있고 주 5일 근무로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 상대하는 일은 힘들다고 한다.

영업운영팀의 주 업무 네 분야로 구분된다. 매표, 검표, 승무원, 카페운영. 직원 채용할 때도 분



4월8일 첫 운영을 앞두고 케이블카 앞에서. 왼쪽부터 사무지원팀 윤다빈, 승무원 강은숙, 문소영, 정진선, 김명순씨

멀미, 고소공포증, 취객 언짢은 말도  
대둔산 품안에서는 ‘그저 작은 일’  
매표부터 승무원 카페운영도 이들 몫

중턱 역사까지 등산하며 출근  
살빠질 줄 알았는데

밥만 더 잘 먹더라

한 달여 임시휴업하며 낡은 장비 교체  
8일 새 케이블카로 만나요

야로 나눠 채용했는데 몇 년 사이에 시스템이 바뀌어 영업운영팀 구성원이 모든 업무를 돌아가며 하고 있다고 한다.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 승무원 업무로는 최고참 입사 8년차 강은숙씨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위부터 기술점검 지원업무 중 정진선씨  
영업운영팀 최고참 매표담당 김근하씨

“보통 취객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죠. 승무원들을 낮춰서 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땐 언짢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꾸하면 일이 커져요. 그래서 은근한 말투로 웃으면서 한 마디 하죠. ‘여기 풍경 좀 보세요. 저거 다 보고 가기도 짧은 시간인데 이 풍경이 아깝잖아요.’ 그럼 시끌벅적 하다가도 조용해지죠.”

멀미가 날 때도, 고객들에게 부대끼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을 받아 주는 것은 대둔산의 넉넉한 품이다.

입사 6년차 정진선씨는 이곳에서 일하기 전 대둔산 케이블카를 두 번 타봤다고 한다. 남편이랑 풋풋한 연애시절에 한 번. 그와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네 식구가 되어 한 번. 그로부터 8년 후에 그녀는 이곳에서 승무원이 되어 대둔산을 오르내린다. 21살부터 산을 타기 시작해 전국의 안가본 산이 없다는 김명순씨의 지인들은 입을 모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재는 산에서 살 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산에서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여기가 이제 내 마지막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입사 5개월차 문소영씨는 지난 2016년 1월 1일 일출을 위해 새벽 5시 30분에 특별 운영되었던 때에 미리 성수기를 경험했다. 일출을 보기 위해 방문한 인파 속에서, 선배들이 선수해준 성수기 대비 노하우가 있다. 바쁠 때는 불일 없더라도 틈나면 무조건 화장실을 갈 것. 그리고 체력 보충을 위해 보약과 영양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자. 이제 한 달 동안 겨울잠은 충분히 잤다. 4월 8일, 매끈한 새 케이블카가 산을 찾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  
행보: ③

자급지향(自給志向)



## “자급은 요원하지만 자족은 자신 있다”

밥상을 차릴 땐 테이블매트를 준비한다. 식탁 위에 김치국물 따워 한 방울도 흘리면 안되니까. 이토록 아름다운 나무탁자님께 행여 해라도 끼칠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지난 휴일에 회사 공방에서 태어나신 몸이다. 탁자가 필요한데 기성품을 사기는 싫고 직접 만들 자신은 없으니 어디서 뚝 떨어지더라도 해라, 잠들기 전에 갖고 싶다고 세 번씩 말했더니 어느날 내게로 찾아와주신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만들었다.

몇 년 전 두 달짜리 집짓기 워크숍에 참여했다가 내게는 재능도 관심도 없다는 사실만 깨닫고 쓸쓸히 돌아온 뒤로 목공을 배운 적은 없다. 없던 재능이 몇 년 만에 생길 턱이 없으니 직접 탁자를 만들어 볼 엄두도 안 났다. 직장 동료는 ‘그냥 하면 다 해요. 저도 했는 걸요. 같이 해요.’라며 나를 살짝 당겨주었다.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다. 함께 하자고 말하는 좋은 동료와 해볼까하는 마음이 기도에 대한 보답으로 탁자 대신 뚝 떨어진 모양이다.

친절한 선생은 작업 순서와 공구 사용법도 알려주고 탁자 높이를 정할 때도 나보다 더 꼼꼼히 검색하고 실제로 나를 앉혀 확인해가며 많이 도와줬다. 알려준 대로 자르고 붙이고 구멍 뚫고 나사 박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손에 익지 않은 공구는 스르륵 자꾸 풀리고 알수 없는 이유로 해체되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다시 조립해줬지만 내가 쓸라치면 맥없이 풀려버렸다. 그냥 해주지 말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말이 무색하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이도 내가 아는 대로 할 뿐이다. 매번 부탁하기도 민망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계속 실패. 역시 나는 안 되네요. 포기해야겠어요, 라고 울다시피 말했다.

나는 천천히 내 작업을 도와 함께 해주었다.

내가 할 때보다 공구 풀리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 왜, 왜, 왜! 내가 하면 안 되는 걸까. 자꾸 나만 안되니까 짜증이 났지만 짓가락질을 배운다 생각하고 겨우 마음을 달랬다. 짓가락질을 하기 위한 짓가락 쥐는 법이라는 말이 더 맞겠다. 손가락 어느 부위에 힘을 언제 줘야하는지를 말로 배우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 손가락보다 훨씬 긴 짓가락을 두 개나 떨어뜨리지 않고 손가락 사이에 끼운 상태를 짓가락 쥐는 법으로 분리해서 생각이라도 했을까. 똑같이 보고 따라한다해도 손에 익을 때까지는 짓가락을 수차례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거다. 내가 잡기만 하면 전동드릴 앞부분이 스르륵 풀려서 분리되는 게 마치 손에 쥐자마자 짓가락이 떨어지는 모습 같다. 방법을 설명해줄래야 설명할 수 없는 것. 스스로 익히고 감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결국 종일 전전공공하며 탁자를 완성했다. 친절한 선생이 몇 차례 시범을 보이고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공구가 해체되면 다시 부탁해서 조립하고 사용하고 또 풀리면 부탁해서 조립해서 사용했다. 한두 시간이 지나자 내 손에서도 풀리는 빈도가 줄었다. 그렇게 오늘도 배운다. 무슨 일에서나 기본이 되는 어떤 수준까지 다다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은 다 달라서 남들보다 내가 현저히 더디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탁자를 놓을 위치와 방향을 고민해 자리를 잡았다. 주위의 나무라 딱 원하는 크기와 모양은 아니었지만 자급생활이란 형편에 맞추는 거니까. 직접 후라이팬에 볶은 커피콩으로 천천히 커피를 내려, 쓰고 남은 나무를 주워 직접 만든 탁자에서 마신다. 직접 만들거나 할 줄 아는 게 많아져서 최소의 소비만 하면서 살게 되면 좋겠다. 자급은 요원하지만 자족은 자신 있다.

글쓴이 바닥(badac) 이보현은 새내기 귀촌인이자 완주의 직장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줍거나 얻어) 쓰는 자급생활을 지향한다.

## 정보화마을 수확체험도 서비스마인드가 필요해요

정보화마을에서 진행되는 수확체험은 농가를 위한 관리자의 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차피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는 것이 어떠한가.

수확체험은 오롯이 농가를 위함이다. 체험진행을 해주고는 농가에서 5% 내지 10% 수수료를 받는다. 그것으로 정보화마을 기금으로 사용한다.

처음에 딸기 따기 체험을 하자고 했을 때 농가는 밭은 것이 많다. 혹은 많이 망가진다. 이것저것 따면서 안 익은 것을 따면 나중에 수확이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반대 이유들을 내놓았다. 비단 우리 마을 뿐 아니라 다른 마을 농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부는 그리 하는 곳도 있을테지만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농촌에 젊은 귀농귀촌자가 늘면서 마인드가 바뀐 것도 사실이다. 완주군이 귀농귀촌일번지로 바뀌고 그 중 완창정보화마을이 있는 운주면이 완주군 13개 읍면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농민들이 늘어나면서부터 서비스 마인드가 매우 좋아졌다.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또 완창마을을 찾아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지난해 전주에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올해도 체험을 오신다고 전화가 왔다.

1시간 차를 타고 아이들과 오시는데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자 흔하지 모르겠지만 딸기로 초콜릿을 문혀서 꾸며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리라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더니 선생님은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다. 가슴이 뛰고 설렌다.

올해도 변함없이 체험을 신청했다. 이런 것이 내가 정보화마을에 몸담고 있는 행복과 뿌듯함이 아닌가 싶다.

/이현주 마을기재운주 완창마을 사무장

# 대립가치가 공존하는 도시는 모든 게 아름답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세계평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위) 도시 공공 텃밭(아래)



## 김다솜 우핑여행기

### ③ 또 다른 모습의 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 우프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1971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유기농가 및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곳에서 하루에 4~6시간 가량 일손을 돕고 숙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전세계 100여 국가 및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동안 얻어 주고 먹던 여행을 뒤로하고 프랑스에서 독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짧은 영어로 다음에 갈 숙소를 예약하고 언제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언제나 그랬듯이 걱정과 불안한 맘을 안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라 불리는 곳에 가보기로 하였다.

숙소에 짐을 맡기고 거리로 나오니 10대 학생을 포함한 시민 500여 명이 커다란 도시의 거리를 가로막고 행진을 하고 있다. 못난 짜투리 천과 박스등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당연 인상적이어서 쫄래쫄래 따라 다녀 보기로 하였다. 독일어로 쓰여진 피켓을 읽어 보지만 읽힐 턱이 있다, 어여쁜 꼬마아가씨에게 행진을 하는 이유를 물으니 "세계평화를 위해서요" 라고 답한다. 여기저기 물어 알고보니 시국에 대한 비판과 이 도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초중고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라고 한다.

참가자의 90%가 초중고 학생들이라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집회였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집회 문화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집회의 꽃인 촛불은 종이컵 초가 아닌 각자의 집에서 들고 나온 듯한 양초들이었고, 시청광장을 수 놓는 일명 차벽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작은 경찰차 2대와 10명 정도의 무장없는 경찰들이 시민들을 호위하는 척하며 콜라를 마시고 시민들과 담소를 나눈다. 간혹 행진하는 무리들을 위해 달리는 전차를 세우는 등 진정 경찰다운 면모를 보이곤 했다.

3일 뒤 같은 풍경으로 20대 청년들이 이 거리를 점령하였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아름다운 지구봉과 피켓을 들고 있었고 자연환경을 보존하

지는 집회를 하는 듯이 보였다. 투박한 싸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문화 공연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은 당연 인상적이다.

착취당하는 자연과 사람들을 위해 시도때도 없이 행동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어엿한 도시답게 온갖 쇼핑센터들이 줄줄이 서있지만 도시 곳곳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도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과 실천들이 묻어나있다. 예쁜 처녀총각들이 퐁퐁 얼어버린 손과 빨간 불을 비비며 자전거를 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에 파킹을 한다. 자전거와 함께 차 대신 소음이 없고 운치있는 전차들이 천천히 도시를 달리며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는 태양을 통해 얻는다. 곳곳에 공공 텃밭을 설치해 두고 조경으로 사용하니 웅장한 도시 속에 소박한 도시민들의 삶이 느껴진다.

탄소 제로를 꿈꾸는 이 도시는 수로 및 바람길을 만들어 도시 생태를 정화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설계되어 있음을 물론, 주택 단열, 대체 에너지, 공공텃밭, 생태적 일을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정책으로써 도시와 사람을 재생 시켰다. 무분별한 개발과 다양한 형태로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를 넘어 자연과 인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 곳은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왔음에 놀란다. 도시와 자연, 정치와 시민, 이상과 현실 등 대립적이라 여겨지는 가치들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참 매력적일 수밖에.



글쓴이 김다솜은 원주에 귀촌해 여러가지 일로 먹고 사는 청년이다.

## 마을기자 확대 운영 지역 아카이브 사업 강화키로

### 완두콩협동조합 정기총회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제3기 조합원 정기총회가 3월 31일 고산면 지역경제순환센터 공유공간 순가락콩빵 완두콩 사무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얼마를 벌어 얼마를 썼는지 공유하고 앞으로 완두콩이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합원들은 완두콩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3월 31일 미디어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조합원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강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마을기자 확대와 지역 아카이브 사업 강화를 2016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차남호 조합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완두콩을 볼 수 있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대표는 “우리 이웃들의 사소한 얘기를

담아보자고 시작한 게 완두콩인데 처음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은 2012년 10월 창간해 2013년 8월 협동조합으로 전환, 이번 4월까지 모두 마흔세 차례의 완주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조합원은 모두 13명이다.



삼레딸기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농가들이 출품한 딸기를 살펴보고 있다.

## 완주 축제장은 체험놀이터

### 삼레딸기축제 성료

완주군 삼레딸기축제가 3월 25~27일까지 삼레문화예술촌에서 열렸다.

삼레문화예술촌은 가치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단지 조성으로 완주의 관광 경쟁력을 확



삼레딸기축제장에 참석한 박성일 군수가 딸기체험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보함과 동시에 주민에게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이용자에게는 젊음과 사색이 공존하는 열정적인 문화 공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쌀창고를 이용해 만든 세미나실이나 책공방아트센터, 야외무대 미술관 찻집 등으로 총 7개 동을 이루고 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삼레딸기축제는 MBC두시만세 공개방송과 딸기품평회, 전시 체험부스 케익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어느 행사에나 빠질 수 없는 각설이와 시골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포장마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농가들은 심사위원 다섯명이 선택(숙성), 날개 고르기, 신선도, 당도, 무게 다섯 분야를 심사해서 점수순으로 수상했다. 16농가가 출품했고 대상품종은 산타, 나머지 품종은 설향이 상을 받았다.

/이현주 마을기자(운주 완창마을 사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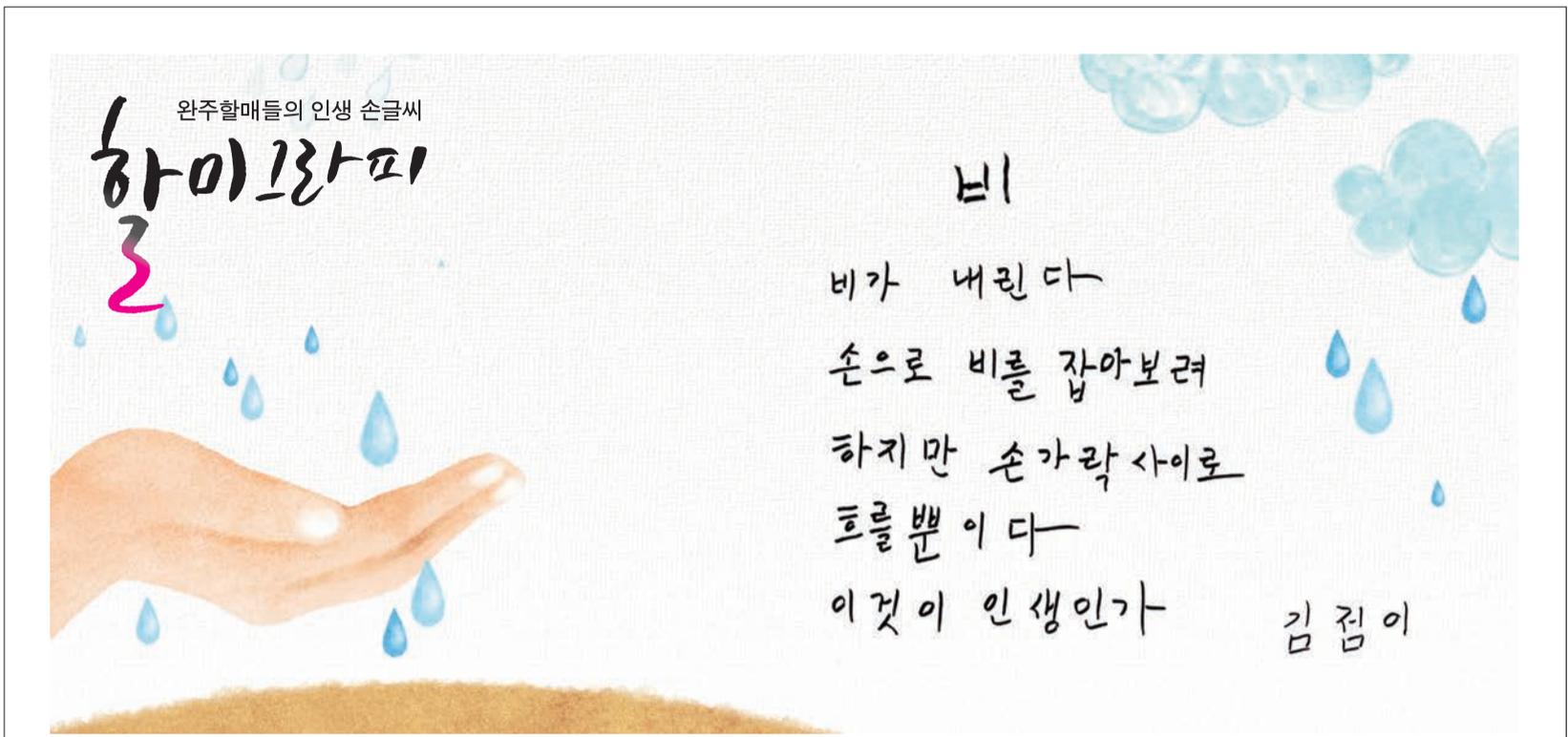
### 행사취재 뒷얘기

완주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에 계시는 송기중 선생님과 2008년에 인연을 맺고 SNS를 통해 항상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날 송 선생님은 직원과 함께 당도와 무게를 측정하셨다고 한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마자 선생님은 딸기 하나 사서 줄테니 가져가라고 하셨다. 마음이 너무 감사해 먹은 거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못내 아쉬워하셨다. 여러곳 체험을 아이들에게 구경 시켜주고 딸기케이크만들기체험을 하려고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구경을 하다 다시 만난 송 선생님은 딸 한벌이에게 예쁜 핀을 선물로 주셨다.

딸기 축제뿐 아니라 완주군에 크고 작은 축제들에 군 담당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참여를 하신다. 그분들이 있어 완주군이 또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현주 마을기자(운주 완창마을 사무장)



2 김점이의 글씨 이야기

들깨들 먹으라고 비가 오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7월, 무더운 여름이었다.  
 지치지 않고 쏘아대는 태양에 대지는 달귀졌다. 밭에 심은 들깨는 힘없이 말라가고 있었다.  
 “들깨를 보러 갔는데 죽어가고 있는거여. 어찌나 내 맘(마음)이 그러던지.  
 그래서 밤에 죄꿈(조금)이라도 비가 와야 될 것인데, 했는데 진짜 그날 밤에 비가 내렸어.”  
 다음날 김점이(79) 할머니는 일어나자마자 들깨를 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날 고개를 폭 숙이고 있던 들깨가 신기하리만큼 고개를 들어 그를 반겼다. 할머니는 비가 고맙웠다.  
 “비가 얼마나 고마워. 다 죽어가던 들깨가 펄펄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그날 비에 대한 일기를 쓴 거지.”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비를 보며 인생을 떠올리신 할머니.  
 그는 말씀하신다.  
 “인생? 인생은 허망한거여. 내 아들들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  
 그래서 내 맘이 허망해. 인생이 허망하다는 게 그런 거지.”



올해로 한글공부를 시작한 지 4년차인 점이 할머니. 요즘도 동네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세 차례 한글교실에 나가신다. 나이 75세에 생애 첫 ‘학생’이 되신 점이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신다. 아직도 받침쓰기가 어렵고, 획획 지나가는 텔레비전 자막을 보기에는 힘에 부치지 만 일기만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할매+캘리그래피=한글문해교실을 통해 한글을 익힌 완주 할매들의 솔직담백한 손글씨를 매달 연재합니다.



서두마을 용대 군 “나도 이제 1학년입니다!”



서두마을 꼬맹이 김용대가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애교가 많아 온 동네 어르신들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귀염둥이입니다.  
 새 가방, 새 신발, 새 옷을 입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초등학생인 형이 늘 부러웠다고 합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배정받은 1학년 4반으로 들어갔는데 친구들도 많고, 무섭게 생겼지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태권도 학원도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저도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매번 졸랐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초등학생이 되면 보내줄게”였습니다. 학원은 입학식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좋고, 집에 늦게 가도 좋고 마냥 좋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용대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외치는 구호도 있습니다. “태권! 효도하겠습니다!”  
 작은 키에 반짝이는 눈으로 아침마다 인사하는 용대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용대의 즐거운 1학년 학교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박미선 마을기자(봉동 서두마을 사무장)

## 빛으로 만나는 작가의 기억과 향수

### 삼례문화예술촌 뉴미디어아트 전시

VM아트미술관서 5월 30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내 VM아트미술관 2016 M프로젝트-1 'Space of Silence' (스페이스 오브 사일런스) 전시가 5월 30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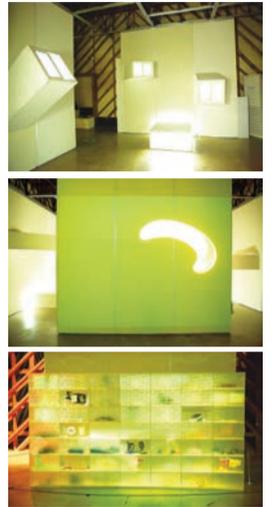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VM아트미술관 개관 4주년을 맞아 마련된 12번째 기획전으로, 미디어아티스트 및 조형예술 작가 10인이 참여, 뉴미디어아트와 공간의 또 다른 예술세계를 선보이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 **1전시실** : 고정수 작가의 '반달곰 태권도 하다'는 조형과 빛을 이용한 조형작품으로 반달곰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민족의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박상화 작가의 '이너드림-서산동'은 관람자의 내면을 끌어내는 상호작용적 예술 작품으로 수제스크린 영상을 통해 기억과 향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 **2전시실** : 김지혜 작가의 '재회'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아이디어의 원천을 마주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허점 작가의 '3D 홀로그램'은 TV와 밤비를 금속으로 형상화, 금속공예와 뉴미디어를 융합한 작품이다.



사진설명



이외에도 장유희 작가의 '애벌레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의 모습을 사람으로 표현해 풍자했으며, 김태준 작가의 '탄생'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인간의 삶을 3차원적 미디어로 표현했다.

또한 김두원 작가 'Anxiety by eyes'은 입체적 구조로 만들어진 창문을 통해 내외적공간의 모습과 그 속에 비춰지는 인간 실루엣으로 자신의 자아를 생각하게 한다.

■ **작은 사진전** : 전북지역작가 초대전인 미술관 속 작은 사진전에는 박일문 작가의 '안나푸르나' 작품이 전시된다. 안나푸르나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 **야외조형작품** : 상상력을 기반으로 강렬하면서도 경쾌한 공간을 만들어 낸 양태근 작가의 '종이학' 등과 백종인 작가의 '황소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통해 공간의 소통을 표현한다.

VM아트 미술관 김경태 학예실장은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기억과 향수 그리고 공간을 이용한 뉴미디어 세계를 통해 예술이 표현할 수 있는 무한의 가치와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 내 위치한 VM아트미술관은 인간의 감성적 시각예술의 원리를 미디어아트를 통해 느껴보고 이해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지속적인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 박미선 마을기자의 촌이야기

3월의 마지막 토요일. 철부지 같던 동생 막둥이가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식 3일 전부터 동네 잔치를 위해 앞집 뒷집 건너 집 아주머니들이 음식 장만으로 온 집안이 떠들썩 했습니다.



## 우리집 막둥이 장가갔어요

"미라엄마는 좋겠어.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훌가분허제?"

"아이고~ 그러 감사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엄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신없어 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은 숨길 수 없나봅니다.

김치도 담그고 갈비도 제고 맛난 음식들이 온 동네 분들 드실 수 있게 넉넉히 준비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주방 구석부터 시작하여 화장실, 현관까지 반짝 반짝 윤이 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침부터 부득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미리 축하해 주시는 손님도 계십니다. 요즘은 시골도 직장인이 많아 저녁식사에 동네 분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오랜만에 동네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미라 아버지 축하해요. 제 술 한 잔 받으셔야죠?" 아버지의 잔이 비우기 무섭게 채워져 갑니다.

오늘 만큼은 마셔도 된다는 듯 기분 좋게 취하십시오.

결혼식 날도 아난테 손님이 100명을 넘습니다. 손님들은 보내고 나니 밤 9시가 넘어가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래 언제 또 이런 손님들을 대접해 보겠니?'라는 생각에 뿌드득 뿌드득 뒷정리도 말끔히 해치웠습니다. 다 정리하고 가족끼리 거실에 앉았는데 띵띵 띵 띵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새 신랑신부가 들어옵니다. 남동생의 사업장일이 밤늦게 끝나 이 시간에 퇴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인데 너무했다 싶습니다. 내일봐도 되는데 오빠 따라 왔으며 인사를 온 새 올케도 예뻐 보입니다.

온 식구가 피곤에 단 잠에 빠져들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예식이라 아침부터 목욕탕에도 다녀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릿도 올리고 곱게 화장도 하고 한복도 예쁘게 차려

## 마음 흔들리는 운주면 완창리



이승철 향토사학자가 들려주는 완주이야기 (21)



운주 완창마을 전경.

다만 6·25 전쟁이 원수이다. 절에 불을 질렀다. 부끄러운 일이다. 대웅전이 웅장했고 추녀와 천장 및 문짝이 유별나 국보급(?) 건물이었다. 전쟁은 좋은 것과 똑똑한 사람을 먼저 쓸어간다. 싸움은 비열한 죄악이다. 지금 건물들은 불탄 자리에 복원한 것들이나 당시에 비하면 시늉만 냈다고 봐야한다. 옛 암자 ‘도술산숙정암(兜率山淑貞庵)’ 석각(石刻)이 있다는데 동행자를 구한다. 완창리 정보마을 전시장 앞에는 첨성대 조형물이 있다. 이 마을 269번지 일암(一菴) 강희목(姜熙牧) 선생을 기억해야 한다. 『황태원자(皇胎元子)』, 『태교지도(胎敎之道)』, 『명륜(明倫)의 빛』 등 책 여러 권을 썼으며 ‘새 마음 도덕 노래’가 있어 보기 드문 도학자이다. 선생 부인께 ‘사람 많이 찾아 드니 귀찮지 않으시냐?’ 물으면 ‘하나도 괴롭지 않다’ 하신다. 부창부수(夫唱婦隨) 내외가 똑같다. 호기심이 발동해 양촌휴양림에서 을미년 과세를 했다.

뒷산에도 올랐다. ‘황산별로(路)’ 계백 장군 생각이 난다. 숲고개를 넘은 5만 신라군이 밟기 운주나 논산 같은 땅이었다. 1350여년 전의 동질성은 오래도 이어진다. 만일 운주가 논산에 넘어가면 이치전적지의 역사가 ‘충남’ 것이 된다. 내 역사 네 역사야 없지만 완주군은 지킬 것 워낙 많다. 멀수록 가깝게 해야 한다. ‘壬亂殉國無名四百義兵碑’를 새로 인식하자.

/국사편찬위 史料조사위원(esc2691@naver.com) · 칼럼니스트

어디서나 변방과 먼데는 잘 모른다. 북한 삼수 갑산이나 남쪽 바다 이어도가 그렇듯이 우리 군에서도 운주면 완창리 제대로 알기 어렵다. 오래 전부터 “운주면 전체가 어려우면 ‘완창리’ 만이라도 논산시에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

듣는 사람이야 으레 그러려니 하지만 이들의 맘속엔 얼음장 아래 물 흐르듯 들어나지 않은 잠재 의식이 깔려있다는 걸 알아야한다. 지리적으로 당연한 소망이다. 논산시청이 가깝고 양촌이 이웃이다. 상류는 장선천 바로 그 아래가 논산 천이다.

한줄기 내를 두고 이렇게 부른다. 전라·충청도가 틀리고 완주·논산 시군이 달라 그렇단다. 운주 물 99%는 논산을 거쳐 금강에 흘러든다. 그러기에 ‘정반합(正反合)’을 부르짖는다.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구역을 바꿔 달라는 요청은

자녀 배우자를 두고 헤어지자는 부부관계와 사뭇 다른 현상이라 지탄받을 일이 아니기에 민심을 제대로 알아둬야 뉘통수를 맞지 않는다. 겨울이면 한 골짜기 위아래 마을에서 같은 감을 두고 곱 감 축제를 각각 연다. 행정구역이 달라 군수 표, 시장 표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편 모두 기이한 현상으로 어수룩한 세상 인심을 고스란히 들어내고 있다. 하나의 길이 금방 운주로(路), 697로로 바뀌며, 김순후 농장 그린시냇가 횃집 푸른산 유원지가 운주나 양촌이나 한 참 물어야 감이 온다. 안심(安心), 원완창(元完昌), 엄목(嚴木)마을 주민들 마음잡아 변창하기를 바란다.

안심사는 고산현 3대 사찰(화암사, 운문사, 안심사)의 하나로 교통이 편리한 요지에 있어 신도가 많았고 재력이 넉넉해 서책 인쇄를 하던 가람이었다. 김종직, 구영, 구치용 등 조선 유생들이 드나들었으며 부도와 비석이 역사를 대변한다.



서두마을 박미선 사무장의 남동생이 결혼식을 마친 뒤 폐백을 올리고 있다.

입었습니다.

3시 반 예식장에 도착했는데 우리들 보다 먼저 도착한 손님들도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딸 셋을 시집 보내본 경력이 있으셔서인지 서로 눈빛으로만 주고받으며 손님들과 악수하고 축하를 받으시

니다. 평소에 찾아뵙지 못했던 친인척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 뵈니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맨 앞줄 손님 석에 앉아 남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입장!”

사회자의 호명에 남동생이 늙름하게 걸어옵니다. 내 동생 장가가는구나하는 생각에 몽클함이 눈물로 맺힙니다. 시작하는가 싶던 결혼식이 마치고 난생처음 온 가족이 모여 가족사진도 찍어 봅니다.

폐백은 드러보기만 했지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 새 올케에게 어떤 덕담을 해야 할지 몰라 진심을 다해 고백해봤습니다.

“올케, 우리가족이 된 걸 환영해. 그리고 정말 감사해.”

이제는 동생 한명 더 생겼다는 생각으로 챙겨 보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서로에게 수고의 인사를 건네고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늘 자랑해왔던 우리 집안의 형제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마음 깊숙이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파이팅!”

/석미선 마을기자(봉동 서두마을 사무장)

## 화폐적이 아닌 진짜 경제적인

### 더/불/어/술



임 경 수

완주와 달리 논산에는 큰 도심지가 있고 그 안에 전통시장이 있다. 중앙시장, 공설시장으로 나뉘어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동네 이름을 따서 화지시장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논산평야의 물산이 모여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상인들이 모여든 꽤 번성했던 시장이었지만 다른 전통시장과 비슷하게 쇠퇴하여 현재의 논산의 인구규모에는 벽차게 크고 중간 중간 빈 점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인회장으로부터 뜻밖에도 이야기를 들었다. 상인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시장 내 공간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이 공간은 채소전이었고 화지시장은 이 채소전이 유명하여 시장이 번성하였으니 지금은 시대에 맞게 기업형 슈퍼마켓을 유치하면 많은 사

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다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울릉도에 사는 포크가수가 친구들이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화폐적인 거야' 라고 정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그 가수의 말대로 '화폐적' 일 뿐이다. 실제로는 경제적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행위와 방법의 전후에 오고 간 돈만을 비교하는 것은 '화폐적'인 것이다. 우린 그걸 '경제적'인 것이라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진짜 경제적인 것은 그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돈으로 환산되는 않는 부분까지, 그것도 바로 당장이 아닌 장기적이고 미래의 영향까지 고려하여 더 낫다고 판단될 때 '경제적'이라 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는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든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 1개가 동네 슈퍼 300개를 망하게 한다고 한다. 구미시의 경우는 대형마트가 생겨 소형소매점 뿐 아니라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금액 대비 15%가 감소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번 돈을 외부로 유출시킨다. 대형마트가 지역에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민의 소비활동으로 대형마트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전체 매출액 대비 지방세 납부액은 평균 1%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지역상품 구매비율 또한

매출액 대비 10%를 넘지 않는다. 즉 대형마트에 의해 빨려 들어간 지역의 돈은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는다.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는 작은 상관까지 장악하고자 대기업이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형 슈퍼마켓이고 대형마트와 똑같이 지역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

예전에 춘천에 살 때 우리 집사람이 회사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우리 집사람은 점심식재료를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구입했다. 시장에서 가면 상인들의 친절함 인사를 받곤 했다. 어느 날 채소가게에서 잔돈이 없어 다음 날 받기로 했던 모양이다. 어느 때와 같이 장을 보고 어제 주지 않은 잔돈 500원을 달라는 말에 채소장사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는 못하지!' (흠짓 놀래는 우리 집사람 모습이 상상이 간다) '대신 1,000원짜리 배추 2개 더 줄게' 이게 사는 맛이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것이다. 이제 '화폐적'인 것과 진짜 '경제적'인 것을 구별해보자. 그런데 요즘 세상에 진짜 경제적인 것이 있냐고? 바로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로컬푸드이다. 구별하기 어렵다면 무조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장을 보자. 그럼 우리 지역경제에도 봄이 올 것이다. 날씨는 봄인데 말이다.

/귀촌인 논산화망마을지원센터장



### 완두콩 클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양덕녀 할머니의 나도 기자다

\*완두콩 클라우드펀딩은 동그라미재단이 지원하는 제기 로컬챌린지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입니다.

#### 운주면로망리 양덕녀기자

개나리를 우리집에다가  
개나리가지를 꺼꺼다가  
심은 가지에서 꽃이피었다  
신기하다  
개나리 눈봄에 일직 꽃이핀다

봄치장을 하여겨울 잠에서 깨지를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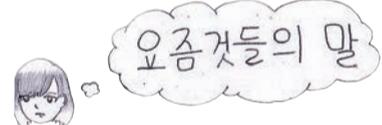
개나리는 바람에 가지가 흔들이면  
가지가 춤추면 건갔다  
개나리 노래도 있다  
나리나리 개라리



완주 마을이야기 Wandookong  
완주 CB공동체

발행 미디어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  
편집인 이용규 인쇄인 강순조  
주소 (565-864)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대표전화 063-291-8448 이메일 toktok1942@hanmail.net

등록번호 완주,라00002 / 구독료 월 3,000원  
독자 기고 및 제보 010-8704-3464 editor2001@hanmail.net



#### ○○ is 뭔들!

○○ is 뭔들  
○○이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뜻이다.

코덕  
코스메틱 덕후의 출입말로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예쁜쓰레기  
겉은 예쁘지만 쓸모없는 것을 말한다.

텅장  
많은 소비로 인해 텅텅 빈 통장을 말한다.

쿠크  
쿠크다스 과자처럼 부서지기 쉽고 약하다는 뜻으로 유리멘탈과 유사하다.

이 글은 '시간을 잡는 소녀(줄여서 시잡소)'라는 잡지를 만든 고산고등학교 학생(권오영, 심소희, 임예빈, 문은혜) 4명이 기획하고 작성한 은어풀이 사전입니다.

## 고민하는 명호씨

### 농/촌/별/곡



차 남 호

4월이 열렸다. 아올러 온갖 풀 나무도 여기저기서 활짝 꽃잎을 열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봄.

완주에서 맞는 여섯 번째 봄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마음 한 구석 불안감이 물렸던 것이다. 놀고먹던 좋은 시절(농한기)이 끝나가는 아쉬움, 곧 시작될 농사철을 맞는 부담스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겠다. 그러나 올해는 그야말로 봄이다. 꽃피는 들녘은 그저 눈부시고, 아련한 설렘과 스물스물 피는 바람에 마음이 달뜨는 건 어인 까닭인지. 딱히 뭘 일이 있어

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지 싶다.

우리 벼농사모임의 격주 '농한기 강좌'도 이제 막판이다. 어떤 협업체계를 갖출지 정하고, 농기계-농기구 조작실습을 하고 나면 곧장 벼씨를 담그게 된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다. 벼농사모임은 그새 덩치가 크게 불었다. 애초 유기농 벼를 짓는 예비농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기술을 배워보자는 것이었는데, 1년이 흐른 지금은 서른 명을 헤아리게 됐다. 물론 벼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예비농부가 훨씬 많다. 그 가운데 열 명 남짓이 올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 집에 한 배미씩이다. '생계형'은 어렵도 없고 자가 식량에, 가까운 친지들과 나눌 만큼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노릇이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나.

벼농사모임의 식구가 늘어난 것은 빠르게 늘고 있는 귀농인구와 관계가 깊지 싶다. 문제는 그렇게 몰려드는 이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완주로 이사온 지 이제 3년이 넘어가는 명호 씨만 해도 그렇다. 농사지으면서 아내, 아이와 함께 '흙에 살리라' 했지만 아직도 직장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생계수단인지라 일터도 그렇고 급여도 만족스럽지 않다. 얼마 전부터는 도시 살 때 다니던 직장에서 복직을 제안해와 가뜩이나 고민스럽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가.

사실 '농업인'으로 생활을 꾸리는 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고된 농사일이 엄두가 안 날뿐더러 농업소득을 생각하면 답이 없다. '떡약별 아래 양파밭 매면서 수지타산 속셈을 해봤더니 호미를 내던지고 싶더라!'는 얘기. 오죽했으면 <시골에서 농사짓지 않고 사는 법>이란 책까지 나왔을까. 지난 가을같이 이래 아직도 울분이 가시지 않는 농업정책까지, 이게 다 농사꾼으로 사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보여준다.

물론, 나처럼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길만이 정답이라 보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는' <반농반X의 삶>(시오미 나오키 지음, 더숲)도 훌륭한 선택지라 할 수 있다.

다만 쉽지 않은 줄 알면서도 왜 시골살이를 택했는지 떠올려 보자. 훌훌 털고 가볍게 살자는 것이 아니었나? 삶에도 부담이고, 지구생태를 망치는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 체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었나 이 말이다. 그러니 소비도 줄이고, 물질적 욕망도 줄이고, 자연과 더불어 흙가분하게 살아가자는. 도시에서 살 때의 소비수준과 번잡한 살림을 지속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럴 바엔 '뭣 할라고' 시골 사나.

이래저래 명호 씨가 '자연 속 삶'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 한동안 힘이 들더라도 벼농사, 밭농사 조금씩 늘려 농사를 익히는 한편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고, 명호 씨 힘내시라!  
/고산 어우리 사는 귀농인

### 마을소식

#### 연두네 나무집 지었어요



2012년 겨울, 갓 태어난 연두를 안고 완주로 이사 온 신명식, 이정은씨 부부.

봉동의 아파트에 살면서 연두가 뛰어 놀 수 있는 시골스러운 집을 생각하다가 2015년 가을에 그 꿈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속 있는 목조주택을 짓기 시작해서 고산면 신원마을로 2016년 3월 20일 이사했다. 이사하면서 새로운 일도 많아졌다. 올해로 5살이 된 연두가 삼우초병설유치원에 입학하고 일도 새롭게 시작하고 벼농사도 조금 지을 계획이다. 그 동안 도움주시고 격려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 화산면 조신희 이장님도 새 집



평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화산면 상호마을 조신희 이장님도 새 집을 지었다.

조신희 이장은 지난달 24평 크기의 목조주택을 지금 살고 있는 집 바로 곁에 똑똑 완공했다. 아담한 단층구조의 목조주택은 방 한 칸에 큰 거실이 특징이다. 집 뒤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일품이다.

그는 "가족도 많지 않고 주로 생활을 많이 하는 공간인 거실을 크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이장님은 새 집에서 마을 주민들과 지인들을 초청해 4월 9일 집들이도 할 예정이다.

#### 손가락에 예쁜발 두명 태어났어요



공동육아모임 손가락에 3월동안 둘째 아이가 두 명이나 태어났다. 이진영-하채현씨 부부의 딸 해수 양(왼쪽)과 안영수-임정희씨 부부의 딸(오른쪽)이다. 해수 양은 3월 8일, 안씨 부부의 둘째는 3월 31일 태어났다.

해수 양의 태명은 토마토였다. 하채현씨는 집 앞에 어머니가 심어 놓은 방울토마토가 있어서 쉽게 토마토로 지었다고 했다. 이름은 지혜로운 어른으로 자랐으면 해서 지혜 혜에 강이를 수로 했는데 인터넷에 사주를 검색해 보니 오행 중에 물이 없어서 이름에 물을 넣었다. 한편 안영수-임정희씨 부부는 지금 딸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한참 고민 중이다.

#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시행



최근 3년간('12~'14) 전라북도 내에서는 총 5천 2백여 건의 화재가 발생, 이중 주택화재는 1,433건(전체 화재의 약 28%), 인명피해는 119명(사망 24명, 부상 95명/전체 화재인명피해의 약 5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초기에 인지하여 진압하는 것이 필수로 관련법령이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2. 2. 5. 시행)
  -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 시 설치 지도 확인
  -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 후 의무 설치(2017. 2. 4. 까지 설치)
-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2012. 7. 6 시행)

## 설치의무 주택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설치 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별도의 전선이 필요없고, 천장 부착형(건전지 사용)으로 내부음성을 통해 화재통보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설치
  - ex) 방3, 거실·부엌(일체형) 경우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4개



문의처 :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 250-4242)

# 고산 세월호 2주기 추모행사



기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 베품시장이 준비됩니다.

- 일시 : 2016. 04. 09. 토 1시~5시
- 장소 : 고산미소시장 광장

완주사람들의  
사소한 일상  
완두콩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동조합